

## “에너지효율등급 강화 단계적 추진”



지난 9월 24일 디지털타임스 단독 기자회견을 갖은 본회 이감열 상근부회장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한국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수준은  
선진국인 미국, 유럽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감 열 상근 부회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전자회관 이감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상근 부회장은 녹색성장이라는 테마 아래 국내 기업들에게 쏟아지는 각종 규제로 문을 열었다. 최근 정부당국은 2010년부터 에어컨에 이어, 2011년부터 냉장고와 세탁기의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갖고 있다. 대형가전의 경우 90% 이상이 1등급인 것은 에너지효율등급을 나누는 의미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내년 4월부터 가전제품 개별소비세를 5% 부과하는 안도 의결됐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효율을 높여서 녹색성장으로 나아가는 정책은 맞지만, 기업에게 시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기간을 줘야만 규제가 판로개척의 장벽이 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전자산업관련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수출지원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진흥단체다. 제19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산자부 공보관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을 지낸 이 부회장은 2004년 5월부터 전자진흥회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산업

계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매일 오후 4시경이면 직원들에게 직접 간식을 배달할 만큼 자상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때는 강하게 입장을 밝힌다. 이 부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의 2등급 제품은 미국, 유럽제품의 1등급과 마찬가지로 수준인데 또 다시 등급을 높인다면 이에 따르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세트업체 입장에서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되면 이에 따른 제품개발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강화된 1등급이라고 해서 현재 받는 가격에서 올려서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규제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것 이외에도 내달 13일부터 16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KES 2009(한국전자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올 한국전자전에서는 ‘3D’와 ‘디지털 방송장비’ 분야가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회장은 “올해 3D테마관이 만들어져 입체영상에 관련된 콘텐츠와 TV 등을 선보일 것”이라면서 “일본업체들은 도시바, 소니, 파나소닉 등이 3D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3D 기술'을 강조하는 이유는 3D가 영화, 게임, 문화재, 건축 등 전 산업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하드웨어 중에서도 영상장비는 일본이 앞서 가고 있지만 그 다음이 한국"이라면

서 "이 시점에 한국이 3D와 방송장비 분야에 집중한다면 가격경쟁력과 기술 이점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할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업체 중에서 이번 한국전자전에 참가하는 업체는 미국 쓰리엠, 일본의 미쓰비시와세이코엡손, 닛산 및 중국 하이센스, TCL 등이다.

## 방송장비산업센터 현판식 및 포스트 미디어법 대비 방송장비산업 발전 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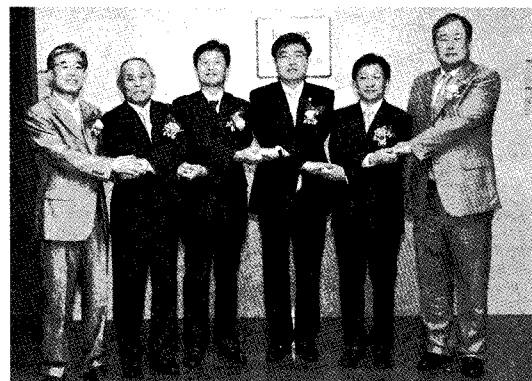
지식경제부는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서 KBS 등 방송사와 방송장비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장비산업센터" 현판식 및 미디어법 개정이후를 대비한 "미래 방송장비산업 고도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먼저 5.28일에 발표한 "방송장비 고도화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내에 「방송장비산업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방송장비산업센터」는 중소 방송장비기업들의 효율적인

해외진출 지원,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단 운영, 방송장비 산업 통계 작성 및 연감발간 등 방송장비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어서 개최된 한국방송공학회 주최 방송장비산업포럼에서는 "방송용 카메라 개발방안", "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방송장비산업 파급효과" 등 최근 방송장비산업의 화두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대기업-협력사 청년채용박람회 참여 안내

대기업의 상생협력 이미지 제고 및 협력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기회 확보하고 다양한 채용정보 제공을 통한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제2회 상생협력주간 행사 중 대기업-협력사 청년 채용박람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체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행사일시 : '09년 11월 3일(화)
- 장 소 : COEX 컨벤션홀
- 주 최 : 지식경제부
- 주 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진행방법 : 온/오프라인 진행
- ※ 온라인 채용박람회 경우 10월 16일~11월 20일까지 진행
- 참여업체 : 대기업과 협력하고 중소기업 등
- 참가규모 : 2,000여명(현장기준, 예상)
- 참 가 비 : 무료
- 참가신청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0월 8일(목)까지 전자진흥회 이협우 주임  
(liwoo@gokea.org)에게 신청서와 함께 회신 부탁드립니다.

- 문의

담당자 : 전자정보팀 이협우 주임

(Tel : 02-6388-6084, liwoo@gokea.org)